

##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2년 11월 6일 (첫째 주일)

성경본문 : 로마서 15장 1-13절

설교제목 : “너희도 서로 받으라”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관계가 온전한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관계의 온전함을 누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이 힘든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힘든 게 아닙니다. 관계가 힘이 든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관계가 온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1절) 세상 나라의 특징 즉 인본주의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행복과 만족만이 중요합니다. 자기 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만의 기쁨이 최고의 가치가 되면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기쁨만을 살면 오히려 자기를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자기만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웃을 기쁘게 합니다.(2절) 다르게 말해서 이웃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이 사셨습니다.(3절) 예수님의 삶은 우리를 섬기는 삶이었습니다.(막10:42-45) 따라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섬김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삶이 역전된 나라입니다. 세상은 모두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섬김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섬김이어야 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섬김입니다. 교회공동체의 본질은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큰 자가 섬기는 자라고 합니다. 큰 자는 오늘 바울의 본문으로 보면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고 합니다.(1절) 약한 자의 약점을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수용성이 강하다, 약한 자를 받아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약한 자는 특징은 수용을 잘 못합니다. 즉 거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약한 자는 관계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교회생활이 사람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사람을 수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에 안맞으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래새인들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세리와 창기와는 밥도 먹기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를 약점을 감당하고, 그들의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기쁨을 위해 살면 오히려 우리가 삽니다. 프랑스 신부 가운데 아베 피에르 신부가 쓴 ‘단순한 기쁨’이란 책이 있습니다. 피에르 신부는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법이란 용납하는 것입니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5-7절)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받아주는 공동체입니다. 사실 교회공동체만큼 서로 다른 존재가 모이는 곳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임은 거의 끼리끼리 모입니다. 같은 학교출신들끼리, 같은 직업군에 속한 사람끼리, 같은 경제적 수준을 가진 사람끼리 등등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배경과 개인차와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구분없이 다 모였습니다. 서로 비슷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하나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8-13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빛이 되어 구원을 땅 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구약의 말씀에 잘 드러납니다. 그것이 9절 하반절과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이 이새의 뿌리에서 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2절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땅 끝까지 전하는 일을 완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인종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현실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의 결정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타자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나라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본무는 하나됨에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공동체는 서로를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서로를 받아주고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의 소망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4절과 13절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되기 위해서 우리를 받아주신 이야기입니다.(4절) 우리가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13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믿음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이루신다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고, 하나되는 것은 우리 의지와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기쁨과 평강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누립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을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스위치와 같습니다. 믿음의 스위치를 켜야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합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 즉 하나됨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에베소서 4:3에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 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세 가지입니다. 은혜, 믿음, 성령입니다. 참된 신앙은 은혜와 믿음과 성령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삼광교회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 ※.말씀 생각해 보기

- 1)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강한 자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떤 자를 의미하는지 설명해 봅시다.(1절)
- 2) 세상의 인본주의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막 10:42-45)
- 3) 우리가 어떻게 서로 받아주고 하나됨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지 설명해 봅시다.(4절, 13절)

####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교회는 서로 받아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서로를 잘 받아주는 공동체입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은 누군가를 잘 받아주는 성도입니까? 서로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가령 먼저 인사를 한다. 새로운 성도들에 먼저 인사하고 함께 식사를 같이 한다. 등등)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